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은 전,현직 교회 사역자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제공하고, 장로교 연계 학교 및 대학에 다니는 소수 인종 미래 지도자를 육성합니다.



HEAVEN BROWN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은 네 번의 연간 특별 헌금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장로교의 전교회적인 특별 헌금은 21세기에 교회 간의 유대관계의 의미를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국장로교의 다양성을 응집하여 공통의 관심사에 믿음의 행동을 집중시키고 이를 실행시킵니다. 이 헌금은 협력, 학습, 증거의 기회를 제공하며, 전체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동으로 증거하는 교회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12136-24-345



헌금하는 방법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헌금해 주십시오



pcusa.org/christmasjoy
 에서 신용카드로
 하시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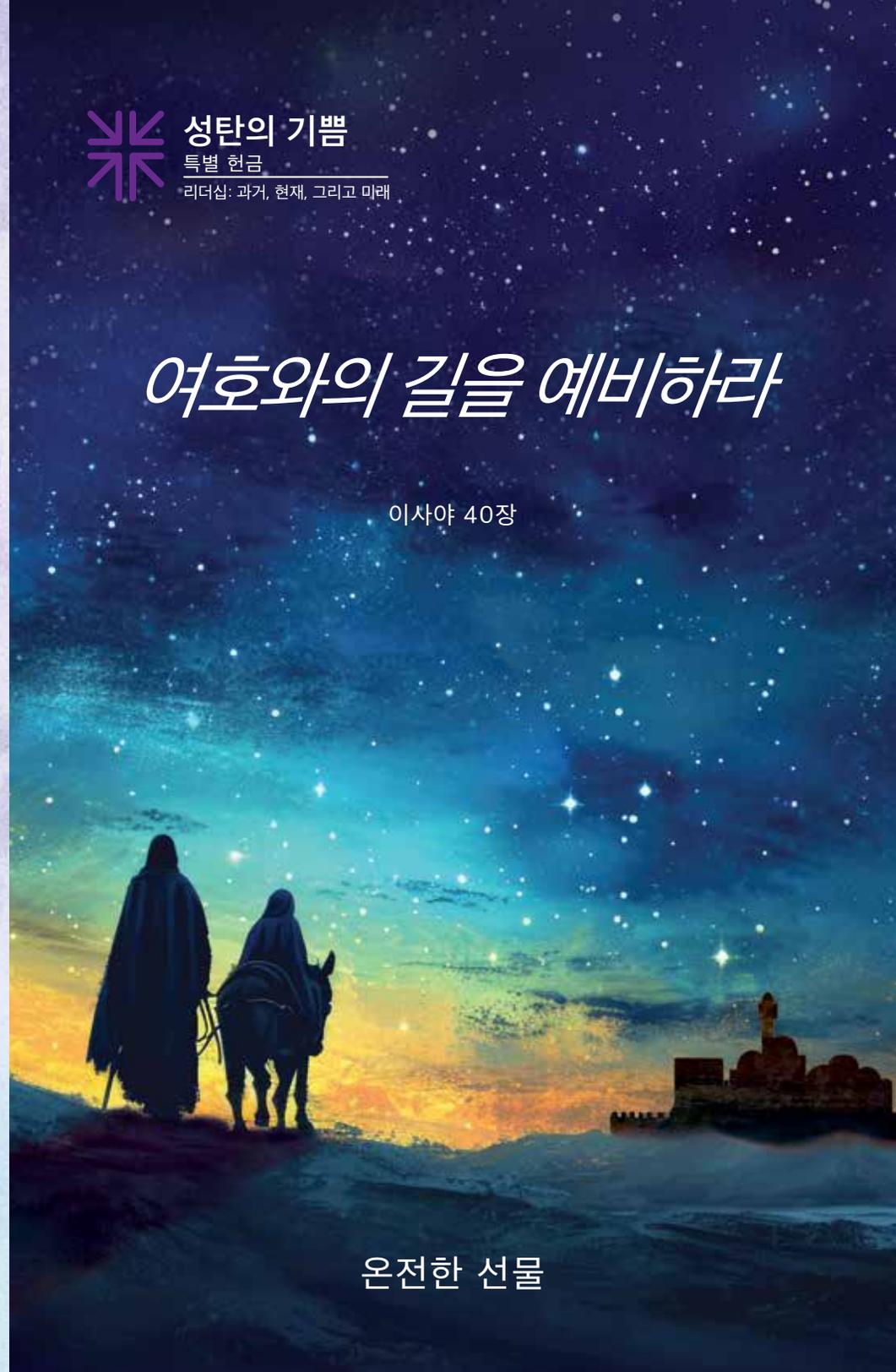


91999 번에
 CHRISTMASJOY 라고
 문자를 보내시거나
 pcusa.org/christmasjoy
 에서도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 40장



온전한 선물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길을 예비합니다.

50%

어려움에 처한 전,현직 교회 사역자들과 가족들이 나아갈 길을 평탄하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제니 휘트포드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야 했고,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닥쳤습니다. 당시 제니는 미시간주 잭슨에 있는 퍼스트 장로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의 소개로, “혼란, 격변, 깊은 슬픔”의 시기에 연금국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별 헌금이 그녀에게 제공한 마음의 평화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수많은 증인들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에 아낌없이 기부해 주신, 제가 알지도 못하고 만날 일도 없을 사람들입니다.”
—제니 휘트포드



Jenni Whitford above, and the Whitford family.



Isabella Pérez Sanchez at left and center right.

50%

소수 인종 공동체 인재를 육성하는 장로교 연계 학교와 대학에서, 학생들이 신앙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합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이사벨라 페레스 산체스는 가족 중 처음으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텍사스 주 킹스빌에 있는 프레스비테리언 팬 아메리칸 학교로 진학한 것입니다. 캠퍼스에 도착한 후 그녀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응급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두 달 가까이 지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이 되라는 삶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큰 수술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지금, 페레스는 완전히 완치되었고, 현재 학교로 돌아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벨라는 “학교 운영을 위해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에 기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장한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지식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기부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모으면,
큰 힘이 됩니다!

